

“빈약한 한국불교 사상체계와 정치논리가 본질 왜곡”

[도법스님인터뷰 _3] 종교평화선언을 말한다

- 종교평화 선언이 두 번이나 종단 어른과 관계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건설적인 논의도 없이 엄청난 난산을 겪는 듯하다. 종교평화선언이 불교계 내부의 반발을 산 이유를 스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교의적 해석 차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많지 않고... 난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라고 본다. 공격하는 쪽은 그것을 집요하게 하는데 방어하는 쪽은 맞대응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제 3 자들이 해주면 좋겠는데 집행부 하는 일이니깐 선뜻 안 나서고... 그런데 저기는 집요하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실제로는 **반대하는 세가 큰것더 아니었는데** 문제는 종단이 그 정도에 휘둘린다는 것이다.”

- 정치 논리가 문제였다고 했는데 어떤 정치 논리를 가진 이들이 그렇게 큰 이해관계가 있어서 반발했다고 보는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 해인사 건도 보니까 거기 또 뭐 계파도 있더라. (종교평화선언이)

해인사에서 걸린 것은 계파하고 관계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원로스님 스스로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고 판단도 쉽지 않은데 누군가가 가서 계속 나쁘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깐 거기에 동조하며 돌아가는 것이다.”

- 정치적 이유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교학에 대한 소신이 부족했던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많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같은 이야기이다. 그것이 없으니깐 정치에 휘둘리는 것이다. 누군가가 어떤 정치 이해관계를 갖고 짠 이야기해버리면 흔들려 버린다. 한국불교의 사상적 정체성의 문제다. 불교관과 불교신념이 없다. 내가 예경실장한테 편지를 보냈던 것은 종정스님이 종지를 갖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냥 너희들 나쁘다 라고 하는 것 하고 종지를 근거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하고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난 그래서 차라리 잘됐다. 종지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다. 자, 종지 정신으로 볼 때 해인사 주지가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괜찮아서 아무 말씀도 안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당신 뜻이 그래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물었다. 또 조계종단에 금품선거가 이루어 진다는데 이것이 종지에 근거한 것인가? 맞는 것인가 또 당신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래서 아무말도 안 한 것인가? 왜 이런 것은 안하면서 종교평화만 종지를 갖고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문제를 던진 거였다.

조계종단에 종지가 있다고 하지만 과연 종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종단정치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종단 행정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없다. 그냥 종단 정치일 뿐 이다, 종단 행정일 뿐 이다, 사상과 정신이 없다.”

-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사상과 정신은 무엇인가

“나는 대승불교라고 생각한다. 한국불교인은 못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원융무애의 세계관과 정신으로 파사현정의 삶을 실천한 사람이다. 동체대비의 삶을 실천한 사람이다, 자타일시 성불도 삶을 실천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깨달음, 나의 해탈, 나의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라고 되어 있다. 못 생명의 안락으로 되어 있지 않다. 못 생명의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법문할 때 써먹는 것이지 실제로는 온통 다 나의 복, 나의 세, 나의 깨달음, 나의 해탈, 나의 열반 이렇게 되어있다. 내가 뭐가 된 다음에 뭐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에게 대한 또는 세상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내가 수행이 되어야, 내가 깨달아야, 내가 해탈해야 그래야 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것이 아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불교는 자리이타라는 말로 표현되어 지고 동체대비라는 말로 표현된다. 못 생명의 행복과 안락을 위한 불교라는 한국불교의 사상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자성과 쇄신이고 혁명이다.”

- 일각에서는 스님이 '도법불교'를 자꾸 한국불교와 등치시키려고 하거나 한국불교를 그렇게 정의하려고 고집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법성원융 무이상, 원융무애 세계관이 무슨 내 불교인가? 종종무진 연기의 세계관은 화엄경 이야기다. 못 생명의 안락과 행복은 전법선언에 나와 있다. '도법불교'라는 말은 맞지 않다.”

- 종교평화선언이 정치적 논리로 가 소모전적 상황이 됐다고 했는데, 일부 교학에 근거한 반대자들의 논리 중 '열린 진리관'에 대한 지적이 있다. 그런데 스님이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또 다른 어떤 체제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내 관심은 현장의 삶의 주체가 행복하다면 어떤 체제든 상관없다. 문제는 이런 체제가 아니라 행복한 삶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어야 한다.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게 기독교 간판을 내걸었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불교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레디앙과의 인터뷰 중에서)”라고 했다. 스님의 종교에 대한 태도는 열린 진리관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앞서 '도법의 불교관' 아닌가

“그렇다. 열린진리관이라는 개념은 나는 모른다. 학자들 사회에서 그런 내용을 쓰는 것 같다. 열린 진리관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불교 안에서 해답을 찾으면 기신론에 나온다.

이언진여(離言眞如)와 의언진여(依言眞如)다. 진리 자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언어도단(言語道斷)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심행처멸(心行處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언어의 길이 끊겼다, 언어는 안 된다, 이것은 절대진리에 관한 부분이라. 언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리 자체를 언어로 다 표현해 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열린 것이다. 절대진리는 기독교 언어로도 안 되고 불교언어도 안 된다. 그러나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언어로 설명한 것 이것이 의언진여다. 이것을 강을 건너는 나룻배라고 이야기한다. 강을 건너는 나룻배는 각양각색의 모양새로 그 수도 천개 만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 이전의 진리이기 때문에 열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것 이라고 벽을 쌓을 수 없다.

우리 기신론 사고방식으로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은 열린진리라고 한말로 표현을 하게 된다.

- 결국 스님은 사람들이 열린 진리관이라고 통칭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이 갖고 있는 불교관이 -사회주의이든 자본주의이든 기독교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요의중생 하는 것이면 그것이 불교다'라는 뜻을 선언문에 담으려고 한 것 인가

"나는 그것이 불교라고 본다."

- 종교평화선언이 비판받았던 것 중 하나는 '이웃종교의 절대자에 대한 인정은 불교를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었다.

"그것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고... 어떤 언어도 해석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 발원문 보면 '부처님은 우주에 충만하셔서 아니 계신데 없으시고...' 라는 부분이 있다. 우주에 충만한 부처님은 어떻게 생긴 인물인가? 또 '아니 계신 곳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 있는 부처가 누구여? 이것은 우리 불교언어다. 매일 법당에서 하는 발원문이다. 이것을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

- 논란이 된 종교철학에 대해 언급하는 것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다. 종교평화선언을 하는데 종교의 역할만 원칙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언문은 초안보다 많이 다듬어 졌다. 다만 결정적으로 열린진리관이라는 개념 이것이 아직 안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열린진리관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의미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결론날지는 모르겠다. 내용은 이미 다 되어 있다. 다만 교리적인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역사적 종교분쟁과 비극의 문제들도 짚으면서 하는 제안이 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진리관이라는 개념을 안 쓰고도 내용을 담아갈 수 있는 선언문이 나오리라고 본다"

- 결사를 선언했는데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외부에서는 결사의 진정성까지도 의심하는데, 총무원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이런 온도차가 생긴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중이 너무 조급한 건가?

"당연히 대중이야 빠른 효과를 기대한다.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그런 기대에 부응도 하고 내용도 차근차근 만들어 가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실력과 역량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다. 대중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면서 내용도 만들어 가면 좋겠는데 우리 실력 역량이 그렇게 안 된다."

- 자성과 쇄신 결사는 무엇을 할지 모르거나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종교평화선언을 예를 들어 종단의 현실을 이야기 해 보겠다. 종교평화선언은 다른 종교야 어떨든 종교 때문에 사회가 걱정하는 분위기에 대해 우리 불교도 책임이 있다. 잘못했다 하는 발로참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저쪽은 무장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무장해제한다’, ‘약하니까 비굴하게 평화를 이야기한다’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정직한 자기 고백, 물론 그것이 할 수 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겠다 싶은 생각이다.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행사 때 과거를 한번 정리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보는 일을 생각하는데 그냥 적나라하게 막 가기에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다. 현실적인 한계를 느낀다.”

- 총무원장이 제안한 ‘결사’에 사부대중이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역대 모든 결사는 결사주체의 절실함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자성과 쇄신결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나도 이런 결사형식은 보지 못했다.”

- 비록 제안에 의해 시작된 결사지만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면 그 진정성이 공감돼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결사의 절실함을 느끼고 제안한 총무원장이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용기있게 고백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쉽게 이야기하면 발로참회가 필요하다는 말 아닌가”

- 그렇다.

“계속 이야기 해왔던 문제다. 원장스님이 ‘나도 돈 갖고 정치했다, 나도 돈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다’ 라는 고백과 ‘과거는 그랬지만 이제는 안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히려는 것인데... 나는 발로참회 형태로 한다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대중들은 여전히 ‘두고 보자’라는 입장일 것이라고 본다”

- 용기있는 고백과 함께 실천의지가 대중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지 않겠다. 총무원장이 단임의 뜻과 함께 남은 임기동안 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다면 말이다.

“단임, 연임 안한다?... 단임까지 포함된 고백이어야 진정성이 드러난다...”

- 일반 대중은 모르겠으나 결사의 동력이 되어야 할 이들에게는 총무원장의 그런 의지표현이 진정성으로 다가가 함께 할 뜻을 내지 않겠는가

“원장스님에게 직접 이야기 해 본 적은 없지만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누가 요구해서 가는 방식이 맞나 하는 생각이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이지 누가 요구해서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제도권 밖의 결사세력을 형성해내는 것이 바람직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상적인 것은 스님 말대로 외부역량이 든든하게 받침 되는 것 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스님도 제도권 내부에서 변화 동력을 찾으려고 들어온 것 아닌가. 스님이 아니면 누가 자성과 쇠신이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원장스님의 고백과 단임의 뜻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있다. 어차피 결사는 원장이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원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아니다. 그런 자기 고백을 하고 결심을 한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스스로 진행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강력하게 제안하고 설득하고 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만 하면 된다는 판단이 들면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판단이 안 든다.

예를 들어서 원장 개인이 아니고 본사주지 종회의원 핵심실세들이 결사선언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함께 논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면 힘을 받겠지만 혼자 해 힘을 받겠는가... 원장스님도 그렇게까지 끌어갈 힘이나 실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혼자 치고 나가거나 설득해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분명한 것은 원장 혼자하는 것은... 글썄...

나 역시 확신이 있어야 그런 제안을 하는데 내가 그런 확신이 없다. 내가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될 일일까 하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원장이 발로참회를 하고 그에 걸맞은 태도를 취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결사가 잘 될까...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 그렇게만 하면 결사가 된다는 확신이 선다면 원장에게 이야기 한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그런 확신이 안 선다. 원장이 받고 안 받고는 이차적인 문제다.

결사선언한 것이나 고백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왜냐면 원장 본인말고는 다른 사람이 함께 할 거라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차피 혼자 하는 모양일텐데..그렇다면 결사선언이나 뭐가 다르겠나...확신만 있다면 이야기하겠지만 글썄...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

- 종단의 결사는 상층부로부터 제안이다. 그렇다면 쇠신안 역시 기득권들부터 변화할 내용들이 제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그래야 힘을 받을 것 같다.

“더 두고 봐야 한다. 대중공사를 통해 그런 안을 완성시켜 갈 것이다. 집행부 부실장 대중공사 등을 하며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일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자기고백과 실천까지 포함될지는 더 봐야 한다.”

- 기득권이 변하지 않고 종단이 자성과 쇠신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나는 그래서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날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스님이 제도권에 들어온 동기를 밖에서의 외침 보다 안에서 결과를 낼 수 있어 왔다고 본다.

“안에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움직임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밖 역할은 다르다. 난 처음부터 그런 생각했다. 결사라는 명분으로 불교계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세력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가능 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도권) 자체로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았다. 자체로만 갈 수 있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다만 이것을 명분으로 해 진정한 고민세력들이 세력화할 수 있다면 제도권의 한계 극복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구체화 된 것 없이 이야기만 되고 있다.

그동안은 사부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천일 정진이나 야단법석 같은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과정을 거치며 세력화가 이루어지면 제도권에 수위 높은 제안이나 요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에서 변화를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의 목소리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단기간내 느낄 수 있는 자성과채신 결과는 없을 것 같다

“그럴 수 있다. 제도권이 대중이 기대할 만한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 말 뱀은 것 외에 제도권에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총무원장의 진정성을 너무 낮게 보는 것 아닌가

“글쎄...진정성이라는 것도 농도는 천차만별이라고 본다. 나는 이 정도도 귀하고 고맙다고 본다. 내가 절 집에 와서 여러 경험 해봤지만 이 정도 인연조건이 만들어진 적도 없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난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님이 제도권에 들어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것 아니었나

“맞다. 그게 우리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행부가 ‘화쟁하겠다, 결사하겠다’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귀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을 씨가 되게 하자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사람들 예상대로 이용당하고 팽당할 수도 있다. 막말로 패가망신하고 끝날수도 있다. 하지만 제도권만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는다. 내가 말이 씨가 되게 하자고 덤벼들었으니까 잘 하든 못하든 다 내 책임이다. 나의 선택이고 내 역량의 문제라고 본다.

처음부터 말이 씨가 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 정도 조건이면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마음을 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제도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결국 그것은 내 몫일 수 밖에 없다.

모르겠다. 계획적으로 나를 골탕먹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내 몫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제도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고, 다른 한축으로 이러한(외부의) 힘을 어떻게 조직화 현실화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고 관건이라고 본다.”

- 외부의 역량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면 제도권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었나

“그건 아니다. 내부의 이런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할 수가 없다. 외부에 대한 절실함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내부의 이런 동기가 있으니 외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화쟁위나 결사이야기를 밖에서 했다면 나는 말지 않았다. 집행부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제도권 종교계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평화선언이다. 종교평화선언을 잘 했으면 남남평화문제로 갈 생각이었는데 안에서 소화를 못 시켜서 터덕거리고 말았다.

집행부가 한다고 했으니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완결구도까지 기대하지는 않았다. 한계는 명확하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들어왔다.”

- 제도권의 동력으로 외부 결집의 단초를 마련하고 거기서부터 자성과채신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 같다.

“결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내는 것이라고 본다. 안에서는 대중공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 것이고, 또 한축으로 외부 결집이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 해야지, 죽어라고 해보는 것이다. 되고

안 되는 것은 인연에 맡길 일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결사를 대했으면 좋겠다. 역량이 부족한 것은 도와달라. 진정성은 믿어달라. 그런 차원에서 천일정진도 함께 해주고 제도권은 믿을 수 없으니 결사라고 한 말이 씨가 되고 싹이 피어 잘 자랄 수 있도록 제도권 밖에서 집행부가 자신들이 맺은 말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것이 한국불교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이 불교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해야 할 일 것 같다. 본부장을 믿고 결사를 바라봐주었으면 좋겠다. 나도 제도권 믿고 들어온 것 아니다.

이만큼도 너무 귀하고 고마운 인연이라고 본다. 다만 말이 씨가 되게 하는 것은 내 역할이다. 총무원장이나 제도권은 이 정도 환경만 만들어 준 것 만으로도 고맙다. 씨가 되고 잘 자라게 하는 것은 해보겠다는 나선 사람인 나의 몫이다. 잘 안돼서 패가망신할지, 잘 될지는 해봐야 안다.(웃음)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다. 도와달라.”

- 오랜 시간 말씀 잘 들었다

“속시원한 이야기 못해 미안하다.(웃음)”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65089>